

80년 광주항쟁을 경험한 민족민주운동은 양질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선전을 또한 운동의 발전과 함께 변화해왔다. 87년 6.7.8월 대투쟁을 거치면서 선전물의 변화는 가속화되었다. 이에 본고를 통해 80년대 선전물의 변천과 선전양식의 변화 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註)

민족민주운동의 발전에 따라 대중에 대한 민족민주운동의 선전 역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다. 특히 87년 6월항쟁 이후 운동의 질적, 양적 발전은 운동의 선전 양식에서도 높은 질적, 양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91년 5월 현재 광범한 제 민주 세력이 결집되어 있는 '고 강경대 열사 살인폭력 규탄과 공간통치 중지를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하부에 여러 종류의 수만장이 나오고 있는 선전물을 볼 때 민족민주운동 선전 양식의 발전은 매우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회의에서 나오는 선전물은 과거 운동의 경험에서 보듯 힘들었던 여러가지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다. 선전을 제작을 통해 과거 축적된 경험을 통일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제작된 각 지역별 부분별 특성에 맞으면서도 통일

기획 80년대 선전물의 변화와 위상 재점검

대중투쟁의 파발마 선전물

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가지 형식의 만화나 기타의 그림 등은 적은 전문화된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국가권력에 의한 강경대군 죽음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투쟁으로 접합시키기 위한 매개체로서 하나의 선전물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크다. 제작된 선전물이 하루 이틀만에 전국으로 배포될 수 있는 운동의 수준을 볼때 80년대 후반 이후 대중운동의 성과와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대대적 위원의 조직적 성과가 이렇게 여러 선전물의 제작과 배포를 통해 의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운동에 있어서 조직, 정책단위를 하나의 생산과정으로서 이해한다면 선전은 유통과정이다. 조직, 정책이라는 생산단위에서 만들어진 가치는 선전이라는 유통

과정을 통해서만이 실현될 수 있다. 60년대 이후 지금까지 지난한 과정을 통해 발전해 온 이념적 성과는 이상적 선전과 계급적 투쟁을 통해 발전해왔다. 특히 80년대 이후 일상적 선전의 내용은 곧 계급적 투쟁의 내용과 완전하게 결합되어 진행되어 왔다. 80년대 이후 선전의 내용과 형식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성과와 한계를 확인해 보는 것은 젊은 청년 학생의 죽음들 '불순한 배후의 선동'을 운운하면서 결국은 두번 죽이고 있는 노태우 정권의 여론 조작에 맞서야 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매우 뜻있는 일이다. 그 작은 시도로서 일단 인쇄물을 중심으로 한 선전양식의 변화 과정을 살펴본다.

80년 5.17학대 계엄 이후 민족민주운동의 선전은 한장의 유인물과 신체적 자유를 바꾸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광주 소식은 김의기 열사 등 죽음을 바쳐져서 입으로 입으로 소수의 사람들 중심으로 조금씩 전달되었고, 83년

생기고 양 단체가 85년 2.12총선 이후 민주통일민주운동연합(이하 민통련)으로 합쳐지면서 민족민주운동은 전선운동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해나가기 시작했다.

II. 민족민주운동 객관화 작업시기

민족민주운동은 자신을 대중에게 인식시켜주는 선전사업 즉 운동의 객관화작업으로 선전의 의미는 확대되었다. 객관적 사실의 전달 뿐만 아니라 사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제시가 모색되었다. 민통련의 신년사나 제반 정치적 사안에 따른 입장은 제도 언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수백만 단위로 인쇄된 유인물을 통하여 각 운동

다. 반면 민정련의 기관지 '민주화'의 길은 정책지로서 자기 성격을 분명히 하면서 아울러 민족민주운동의 이념을 대중화 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민주화의 길'은 운동의 이념을 반합법 공간에서 합법 공간으로 이전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민주화의 길'은 한번 제작될 때마다 여러명이 구류를 준비해야 했다. 또 민정련은 다양한 스티커와 자료집 그리고 유인물을 제작하여 운동의 객관화 작업을 확대시켰으며, 2.12총선을 앞두고 대대선전 작업을 통해 하나의 독립된 정치세력으로 민족민주운동의 위상을 높였다. 한편, 민주인문운동협의회(민인협)의 발족은 이시기 선전사업의

운동의 선전 양식은 질적인 발전을 이룩한다. 이제 운동의 선전물도 대량 공급을 소화해낼 수 있게 되었고 뛰어난 기능도 확보하게 되었다. 그리고 민비협이나 민비련과 같은 전문 미술인이 민족민주운동의 역량을 결합되면서 이루어진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IV. 선전역량의 발전에 따른 한계

선전역량의 높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한계는 분명히 있다. 첫째, 선전물의 기능이 주요하게 부각되면서 선전물의 형식만을 전달하는 부분과 선전물에 담긴 내용을 작성하는 단위가 별개의 것으로 유지되고 있다. 둘째, 선전물의 배포가 일선 회원 및 활동가의 적극적인 결합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지나치게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선전물이 필요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투쟁의 요소가 배제되고 있다. 제작된 선전물을 배포할 인력이 대다수고 제작할 인력이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가장 중요한 함의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은 그 역이 되고 있다. 즉, 선전의 내용을 마련할 정책 담당자는 매우 많으나, 선전을 제작인력이 전문화되어 제작인력은 더욱 적어지고 일상적으로 선전물을 배포할 인력은 더욱 적어져서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수백개의 운동단체에서 조직과 정책 그리고 선전 담당자의 비율을 확인해 보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뜻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우리를 벗이라 부르지말라

독자투고 '고향논단-김지하론' 비판

본고는 지난 977호(5월6일자) 3면에 실렸던 '고향논단-시인 김지하론'에 대한 반박투고이다. 이와함께 지난 5월5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김지하씨의 글에 대한 비판까지 같이하고 있다.

(편집자註)

"김지하"씨 나 또한 군더더기를 싫어한다. 잘라 말하겠다. 더이상 우리를 벗들이라 부르지 말라. 당신에게 존경심을 마음 에 가졌던 우리에게 더이상 변절자의 추악한 인형을 드러내지 말며 붓을 쥐고 침묵하라.

당신만 풍류병적 망상을 하면 되자, 우리까지, 그 풍류병을 함께 하란 말인가.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존경심을, 70년대의 영웅에 대해 품고 있던 마지막 존경심을 철회한다.

'오적'을 읽고서의 그 벅찬 분노를, 또 대설 '남'에서의 그 생명력에 벅찬 감동을 당신에게 돌려준다.

그것은 당신을 영웅으로 만들었던 역사에 대한 당신의 무지 때문이며, 당신을 영웅으로 떠받들게 했던, 수많은 젊음의 죽음과

민중들의 희생에 당신 스스로 반역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이 신성하다는 것, 인정한다. 또 당신의 말속에서 생명은 출발점이며, 도착점이라는 말도 또한 인정한다. 바로 그렇다. 우리의 주제는 휴머니즘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당신 말투대로 빌리면, 생명의 보위, 바로 그것이며, 민중의 해방이다.

그러나 지하여!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죽음을 가져오게 한 사회적 조건이다. 살고 싶어하는 생명을 백주대로에 때려 죽이는 세상에서, 생명을 말살하려는 현실을 외면한채 생명 자체만을 논하는 것은 올바른 삶에 대한 모독이다.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이땅의 현실, 날치기를 일삼는 이땅의 현실에 대한 저항의 방법을 죽음 밖에 찾을 수 없었다면, 그것은 명백한 타살이다.

이 억울한, 죽은 이들의 뜻을, 기어이 사회의 모순을 뜯어 고쳐고자 한다고 해서, 시체선호증, 운운한다면 정의를 위해 희생했던 사람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우리 모든 민중들은 모두 정신병자인가. 전태일을 존경하며 고개숙이는 우리, 광주2천여 영령의 뒤편

지금까지 당시에 대한 존경심에 대한 예우로, 당신의 말투를 빌려 쓰다면 죽음을 강요하는 죽음의 배후세력, 검은 악령들을 쫓아 버리고 구원을 떠도는 중증신들-당신의 말을 빌면 모든 생명에게는 신이 있다-가-검은 악령에 의해 계속 쫓아지는 '척'을 '해원'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전망이다. 바로 검은 악령은 쇠아프로 백주대로에서 사람을 때려 죽이는 공권력이요 파시즘이고 또 독가스가 가득한 작업장에서 몇년이고 부려먹다가 병신이 되던 쫓아내고 죽여하는 그런 재벌이며 수천만인 먹는 식수에 몇 백만원의 이득을 위해 감작하고 폐물을 방류하는 재벌들이다.

"분명히 못박아 말하지만 정치란 도덕적 확신에 기초한 엄밀한



새로운 질적 발전을 용변해주는 징표이다. 해적 언론인이 중심이 되어 만든 언론은 기관지 '말'을 통해서 그리고 민인협 기관지 '민중의 소리'를 통하여 선전물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의 발전을 이끌었다. 민통련이 '민중의 소리'를 계속 제작하여 민통련의 해체 당시 지령 60호를 냈던 것은 바로 구체적인 민족민주운동이 갖는 선전역량의 본보기이다.

부분적으로 확대된 마스터를 통한 인쇄물은 제도언론에 외면당한 민중생존권 문제 등 객관적 사실을 대중에게 전달해내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고, 지극히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유행을 통한 인쇄방식은 선전물의 기교적인 측면을 발전시켜 선전인물의 기능을 발전시켰다.

과대한 생산과정의 인력 배치로 유통과정이 정체된다면 운동의 발전은 매우 곤란해진다. 생산된 가치는 대중의 바다에서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이 오게된 것은 선전이 지나치게 기능에 치우쳐 민족민주운동이 갖는 선전의 의미가 과도하게 분화되어 버린 데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그리고 한자레신문의 창간 이후 기존 선전양식의 분류를 이루었던 정치폭로의 성격이 축소되고 올바른 분석과 전망의 제시를 분류로 하는 선전의 내용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기인하는 바도 있다.

POSCO메세지 ⑤ - 축제편



지금은 장미 한송이를 가꿀때

5월, 봄은 젊음의 계절. 초록이 있고 장미가 더욱 돋보이는 때입니다. 우리를 위해, 젊음을 위해 태어난 축제의 한바탕-이럴때일수록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아닌 남을 이해하고,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젊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인생의 커다란 의미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생각뿐이던 그녀를 용기있게 만날 수 있는 자리. 장미가 있고 사랑이 있는 축제의 계절. 그곳에 당신을 위한 자리 하나를 비워두겠습니다.

지금은 한송이 장미를 소중히 가꿀 때입니다.

포항제철은 다음 세대의 행복과 다음 세기의 번영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김진호 (정의·4)

김형민 (전면 편집국장)

포항제철은 다음 세대의 행복과 다음 세기의 번영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포항제철주식회사
Pohang Iron & Steel Co., Ltd.